

자유학기제의 미래와 중학교 교육 혁신의 과제

- 일시 : 2014년 12월 8일 (월) 19:00
-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목 차

■ 토론회2. 자유학기제의 미래와 중학교 교육 혁신의 과제

• 보도자료	-----	4
• 발제: 자유학기제의 미래와 중학교 교육 혁신의 과제		
/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6
• 토론1: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특임센터 소장)	-----	27
• 토론2: 서용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30
• 녹취록	-----	44

토론회 2

**자유학기제의 미래와
중학교 교육 혁신의 과제**

일시	12월 8일 (월) 저녁 7시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발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토론	1.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특임센터 소장) 2. 서용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보도자료



좋은교사운동은 2014년 12월 8일 저녁 7시 “자유학기제의 미래와 중학교 교육혁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정병오(문래중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 위원), 토론은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특임센터소장), 서용선(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유학기제 시행 2년을 통하여 현장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며 교사>학생>학부모 순으로 만족하고 있다.
- 하지만 자유학기제 정책이 다만 자유학기제 정착에만 국한되고 이를 통한 중학교 학교 교육의 혁신이라는 본질적 방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 대선교육공약으로써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시범실시의 가닥은 전환학년제가 아닌 교육과정 개혁으로 방향을 잡았다.
-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의미는 1) 정기 지필 고사를 없앴다는 것 2) 주지 과목이 축소되고 예체능, 체험학습, 선택교과의 시수가 확대되었다는 점 3) 교사별 평가 체제를 가져왔다는 점 4) 선택교과의 확대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위의 4가지 변화는 매우 본질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큰 반발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향후 이와 같은 성과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1) 고교 입시 체제를 바꾸어 중학교 교육을 입시 교육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것 2) 성취평가제 내 실화로 학력 저하 논란을 넘는 것 3)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아울러 교육청별로 추진되는 혁신학교의 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어야 하고, 전환학년제 또한 또 다른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자유학기제가 던지는 의미는 차기 대선의 교육 의제로 연결되어 확장되어야 한다.

토론과 질의 응답을 통하여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자유학기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간 협력과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 2016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 고교 진학을 하는 2018년까지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도록 고교 입시가 개혁되어야 한다.
- 자유학기제가 체험학습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교과수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과수업의 혁신을 위한 목적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자유학기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학교와 연결되는 맥락도 보이고 있다.
- 자유학기제가 단순한 직업 체험이나, 체험학습의 확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학력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그 속에서 체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할 때 기존 교과를 재구성하는 의미가 살아난다. 그 방향성은 프로젝트형 학습으로 가야 한다.
- 체험학습을 위한 외부 기관 연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외부로 풀 필요는 없으며 학교 안에서 교사의 선택 교과 개설이 활성화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014년 12월 9일

좋은교사운동

발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자유학기제의 미래와 중학교 교육 혁신의 과제

1. 들어가는 말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공약의 경우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의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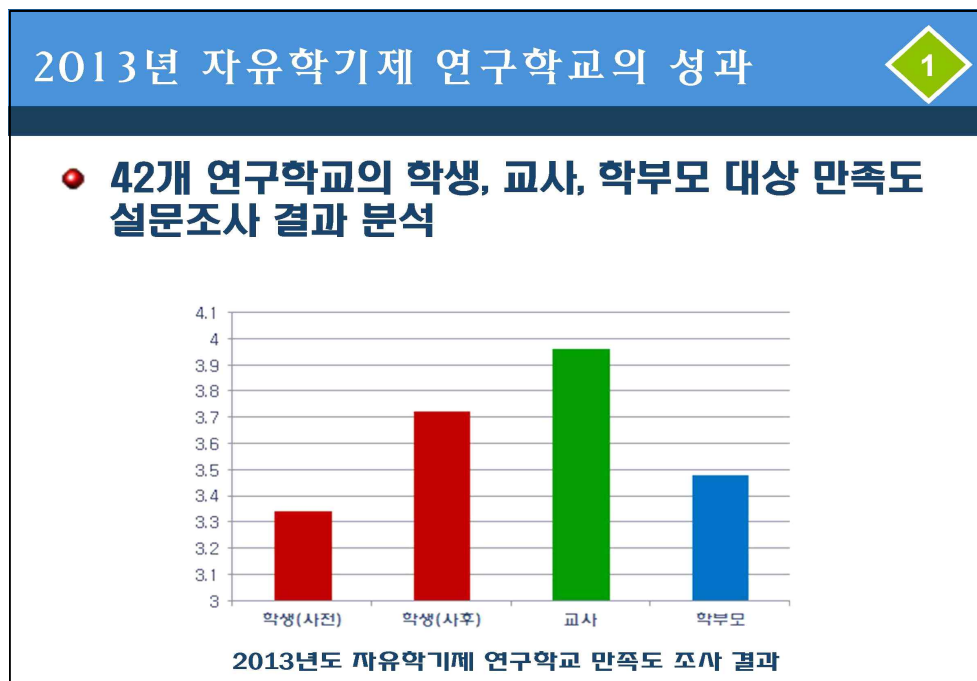
〈표1〉 박근혜 대통령 21개 초·중등 교육공약 이행결과

공약명	추진경과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 14. 국비편성 無(5,400억원 지방비 전가)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 14. 예산편성 無
자유학기제 운영 및 매뉴얼·프로그램 개발 보급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CCTV 설치 확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진행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 확충	지방비 사업으로 진행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재정당국과 협의 안됨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14. 필요예산 5,375억원 전액 미반영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 14. 배치교사는 지난 9월에 선발완료
EBS 온라인 진로탐색 지원체제 구축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축 불필요
체육교육 공무원 정원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재정당국과 협의 안됨
스포츠강사 채용 예산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	재정당국과 협의 안됨
한국형 공동원서접수시스템 구축과 예산반영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410억원 지원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 자료 개발 보급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창의 인성교육 자료 개발 보급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필요예산 201억원 중 20억원만 확보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 반영	269억 5,600만원 중 13억 5,600만원 확보

공약명	추진경과
학교교육통계관라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교원평가의 일원화와 평가지표 개선	재정당국에 요청하였으나 협의 안됨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OECD 상위 수준 개선	' 14. 8,000억원 필요하나 미반영

자료 : 박홍근 의원실 보도자료(2013. 9. 30)

이러한 전반적인 공약 이행의 부실 가운데서 그나마 공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법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는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의 선행교육 규제만 담고 있어 실제로 학교교육 정상화 효과는 거의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¹⁾ 이에 반해 자유학기제는 아직 시범 실시 단계이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 2학기 자유학기제를 처음 실시했던 학교 42개교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경우 자유학기제에 대한 충분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받지 못한 관계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자유학기제를 직접 경험한 학생과 교사의 경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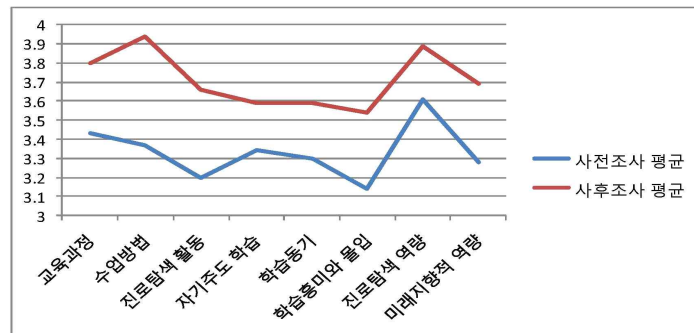


자료 : 최상덕,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사 대상 컨설팅트 양성 자료집(최종)』, p.40

1) 한겨레신문 2014. 10. 30일자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62051.html>)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성과

42개 연구학교의 운영에 대한 학생의 사전, 사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학생)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사전 및 사후 조사 영역별 결과

자료 : 최상덕,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사 대상 컨설턴트 양성 자료집(최종)』, p.40

특별히 자유학기제 운영을 직접 담당했던 교사들의 경우 자유학기제로 인한 업무 증가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학기제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에 있어서 확보된 교사의 자율성 증가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성과

42개 연구학교의 운영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평가 계획 및 실시에 자율성 발휘에 대한 만족도 : 4.28
- 교육과정 구성에 자율성 발휘에 대한 만족도 : 4.16
-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 : 3.06

자료 : 최상덕,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사 대상 컨설턴트 양성 자료집(최종)』, p.41

이렇게 자유학기제는 학교 현장에서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014년 1학기에 38개 교가 추가적으로 시범 실시를 했으며, 2학기에는 기존의 시범학교에 더해 731개의 희망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흐름대로 가면 2016년도 전면 실시도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학기제 시범 실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향후 전면 실시의 전망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기대는 오히려 식어버린 느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자유학기제 기본 계획이 확정되던 5개월 정도는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논의가 매우 활발했다. 특별히 현재 중학교 교육이 부딪혀 있는 현실을 타개할 혁신의 방법으로 자유학기제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물론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는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정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지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에 이상을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거품을 빼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현재 자유학기제 정책의 추진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처음 제안하고 논의할 때의 중학교 교육 혁신의 이상을 잃어버리고 과도하게 현실 정착의 문제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자유학기제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의 문제의식과 이 정책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현실적 맥락을 잃어버리고 현재 교육의 모순을 조금 보완해주는 하나의 좋은 정책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이 토론에서는 자유학기제라는 정책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의 배경과 이상, 그리고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이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잠재력과 파급력 등을 살핌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처음 의도했던 중학교 교육 혁신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게 하기 위한 지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집중하더라도 자유학기제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칫 모처럼 우리 교육계가 붙든 좋은 정책이 현실 속에서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고, 그것이 가진 잠재력과 파급력을 충분히 살려 중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 전체를 혁신하는 정책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기여하기를 소망해 본다.

2. 자유학기제, 공약 제시부터 개념 확정, 시행까지

1) 자유학기제가 왜 지난 대선의 주요 교육 공약이 되었을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현재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그 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거의 논의된 바가 없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교육공약 가운데 자유학기제와 거의 비슷한 개념의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내세웠던 것을 볼 때 자유학기제는 지난 대선 당시의 국민들의 중요한 민심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권의 시각에서 볼 때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을 국민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자유학기제가 교육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슈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국민들은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와 같은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우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심화된 중학교 교육의 위기와 관련이 깊다. 이명박 정부의 제일 중요한 교육정책은 고교다양화 정책이었다. 이는 지난 40년 동안 그나마 우리 교육계가 붙들고 있던 고교평준화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선발 특혜를 가진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고교평준화는 명목만 남은 채 완전히 해체가 되었고 고교는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자공고-일반고 순으로 완전히 서열화가 되었다. 그 결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고 위기 현상과 더불어 중학교 단계에서의 성적 경쟁과 고교입시 압박이 이전에 비해 훨씬 심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성적과 입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중학생 시기의 자아정체성과 인성 함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물론 심각하게 부상되고 있는 중학교 교육의 위기 현상의 원인을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인한 성적 경쟁과 고교 입시 압박의 강화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중학교 교육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가정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

2) 이 내용은 2013년 5월 10일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진로교육, 자유학기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6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때, 필자가 발표한 ‘한국형 자유학기제, 해외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글의 일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인 흐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 정책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역주행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중학교 교육 위기의 흐름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와 같은 획기적인 혁신이 등장할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 동안 대학입시 개혁과 이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교육개혁의 실패의 영향일 것이다.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모순이 대학입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학입시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체제와 대학서열화, 더 나아가면 노동시장의 문제와 복지체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들과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 사회 모순을 제대로 손대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입시와 고교 교육과정 건드리는 개혁들은 또 다른 모순을 낳는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부분을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입시를 포함한 고교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더라도 그 동안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거나 혹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즉, 중학교 교육을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하위 단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 나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자아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해보고, 미래를 꿈꾸어 보고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본질적인 탐구 학습을 하게 함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중학교 시기 도 대학입시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학입시의 개혁에 비해서는 훨씬 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을 먼저 교육 본질에 맞게 혁신함을 통해 그 동력을 바탕으로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개혁으로 나아가자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2) 자유학기제 공약의 모호성과 개념 확정 과정

자유학기제는 심도 깊은 정책 연구에 바탕을 둔 정교한 정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대신 교육공약의 형태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공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자유학기제가 처음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으로 발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에는 학생들의 활동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진로상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공약에 대해 교육계의 다수의 사람들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 실제로 박근혜 교육공약 캠프 내에서도 자유학기제 공약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했다. 그리고 정부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13년 6월 자유학기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영국의 갭이어 관련 담당자나 전문학자를 초빙해 소개한 것을 볼 때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덴마크의 애프터스쿨과 같은 형태가 자유학기제 공약의 모델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야 하는 시점에 오면서 자유학기제의 정확한 개념과 내용을 채우기 위해 청와대와 교육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때 논의의 핵심은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전환학년제 도입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 논의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	전환학년제 방향
정규교육과정과의 관계	정규교육과정 내 한 학기를 지정	정규 교육과정 밖에 별도의 학기로 운영
시기	중1 혹은 중2	중3 혹은 고1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
대상	그 학기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희망자
전면 실시 여부	2-3년 시범 실시 후 모든 학교에 전면 실시	시범학교 혹은 민간 차원 희망학교 지원

많은 논의 끝에 청와대와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내용을 전환학년제가 아닌 교육과정의 개혁으로 방향을 확정했다. 이 때 이 논의를 주도했던 김재춘 청와대 교육

비서는 애초 본인이 자유학기제 공약을 구상할 때 생각했던 모델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모델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과정 개혁 실험이었던 ‘8년 연구’³⁾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 개혁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교육과정의 개혁 방향과 전환학년제 방향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전환학년제 방향은 자유학기제의 개념에 담지 않더라도 현행 대안학교 체제로 담을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3. 자유학기제가 깨뜨린 금기들, 보여준 희망들

이렇게 자유학기제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전환학년제의 개념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중학교 단계에서의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담고 정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함으로 인해 교육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별히 자유학기제가 가져온 변화는 그 이전 수많은 교육개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바꾸어내지 못했던 우리 교육의 많은 금기들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저항이나 파장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기존 우리 교육이 도무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성역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 기말고사로 대표되는 정기 지필 고사를 없앴다는 것이다. 교육에서 평가는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 방법은 다양한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등 교육에 있어서 중간, 기말이라는 정기 지필 고사는 교육의 최종적이며 유일한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수업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업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버렸다. 그리고 “이것 시험에 나온다” “밑

3) 8년 연구는 1933년부터 1940년까지 8년 동안 30여 개의 고등학교와 300여 개의 대학이 협약을 맺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진보주의 교육과정을 시행한 후,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학업 성취를 보이는지를 추적해간 중단연구를 말한다. 미국 진보주의 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이 연구에서 고등학교는 전통적인 교과와 지식 전달 위주, 그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암기했느냐를 평가하던 전통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의 개별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는 학습’, ‘창의력을 표현할 보다 많은 기회 제공’ ‘민주적 학교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권한 확대 등 자유로운 교육과정 개혁을 시도했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전통적인 평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발을 했으며, 이들이 대학에서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이후 미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 개혁의 중요한 기초 연구이자 시범 실시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Wilford, M. Aikin이 쓴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8년 연구 이야기>(교육과학사)에 잘 나와 있다.

줄 썩!”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한편으로 교사의 수업을 왜곡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교사를 교과서 전달자로 전락시키고 안주하게 만드는 주범이었다. 그런데 비록 한 학기이긴 하지만 자유학기제는 중등학교 단계에서 중간, 기말 고사로 대표되는 정기 지필 고사를 없앴으로써 정기 지필 고사가 우리 교육의 절대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이든 교사든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가 추구하는 본래적인 목적을 따라 수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성취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주는 형태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

둘째, 국영수로 대표되는 주지 과목의 시수가 축소되고 그 대신 예체능 과목과 체험 학습, 선택교과의 시수가 확대되었다. 비단 국영수 뿐 아니라 교과 시수 조정 문제는 각 교과와 그를 둘러싼 학계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싸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영수로 대표되는 주지과목이었고, 국영수 수업 시수는 일종의 성역이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에서는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진로 체험과 탐색을 위해 국영수 중심의 주지과목을 축소하고 입시와 무관한 예체능과 체험학습, 선택교과 시간을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국영수로 대표되는 주지교과의 축소와 예체능과 선택교과의 확대는 새로운 제도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20% 증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 20% 범위 내 증감의 자율권이 지금까지는 국영수 시수 확대의 도구로 활용되어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국영수 시수 축소와 예체능 및 선택교과의 확대를 이끌어낸 자유학기제의 힘은 실로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사에게 완벽한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주면서 교사별 평가체제를 가져왔다. 국가가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제시하지만 그 교육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리고 가르친 자가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도 교육학의 가장 기본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껏 교사가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평가도 자신이 가르친 내용과 무관하게 교과서의 내용을 평가해 왔다.(물론 교과서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친 내용을 평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의 내용을 벗어나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가르친 교사의 경우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평가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주고 교사별 평가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에서는 정기 지필 고사를 없애고 수행평가만 실시하되, 그 결과를 계량화된 숫자가 아닌 서술식으로 기록하게 함을 통해 기존에 교사를 억누르던 교과서 위주로 다른 교사와 똑같이 수업하고 똑같은 평가를 해야 하는 족쇄를 일순간에 해소해버렸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교사에게 실질적인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이 주어지고 교사별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선택교과의 확대로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이,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과 개설과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해졌다. 그 동안 아이들은 국가가 제시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 가능했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실질적인 선택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선택 교과가 확대됨에 따라 자신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따른 교과를 선택하여 심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신의 흥미나 관심, 진로에 따른 교과 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교과를 직접 구상하고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권한은 동시에 의무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사로서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교사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의 폐지와 국영수의 축소,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실질적 보장, 교사별 평가의 도입, 선택교과 확대 등은 우리 교육의 변화를 위해 오랫동안 주장되었던 내용이지만 일상적인 교육의 틀 가운데서는 좀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런데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시행되면서 보수 세력의 저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슬그머니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되었고, 우리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중학교 교육 혁신으로 이어가기 위해 남은 과제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2학년부터는 다시 시험 중심 체제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자유학기제

의 성과가 다 사라지는 것 아냐?”

위 이야기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나름의 교육적 성과와 맛을 보고 있는 학교와 교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다.

아직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에 전면 실시된 상태도 아니고, 시범 실시 학교나 희망 학교들도 그 실시 내용이나 교육적 성과 면에 있어서 학교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업개선이나 평가 개선, 선택교과 내실화, 진로 체험의 내실화 등 자유학기제의 각론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학교와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의 내실화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해야 할 고민이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3년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이를 통해 중학교 교육 혁신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중학교 전 학년 확대를 통한 중학교 교육 혁신에 대한 비전 없이 단지 한 학기 동안의 자유학기에 온 영에만 매몰되다 보면 자유학기제가 가져온 중학교 교육 혁신의 동력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현 체제 내에서 가동되는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이것은 중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자유학기제를 도입했던 자유학기제의 처음 취지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3학년 전체로 확대해 중학교 교육 혁신의 계기로 삼는 것은 한 학기 동안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를 잘 정착시키고 내실화시킨 후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한 학기 동안의 자유학기제도 그에 합당한 힘과 무게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3학년 전체로 확산하여 중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1) 고교 입시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어 중학교 교육을 고교입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3년 전 과정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고등학교 입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즉, 고등학교 선발 과정에서 중학교에서의 계량화된 성적이나 석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고등학교 입시를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바뀌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일부 학교의 경우만 중학교 생활기록부 전 형으로 바뀌면 된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교육이 고교 입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 학기제를 중학교 3년 전 과정에 확대하는데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된다.

사실 대학입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 그리고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교입시의 경우 굳이 현재와 같은 성적 경쟁 체제로 만들어 중학교 교육 혁신의 걸림돌을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경쟁 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입시 경쟁 시기를 최대한 늦추자는 것이 한국 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이었다. 그래서 중학교 입시의 경우 1969년 서울 시내 중학교에서 시작하여, 1970년 전국 10대 도시, 1971년 전국 중학교 입시에서 입학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학군 별 무시험 추첨 배정을 실시함으로 일시에 해소를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시의 경우 무시험 추첨 배정이 확산이 되다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⁴⁾, 특목고와 자사고 정책이 무분별하게 도입됨으로⁵⁾ 인해 중학교 교육 혁신의 걸림돌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성취평가제 내실화로 학력저하 논란을 넘어야 한다

앞에서 2013년 자유학기제를 처음 실시한 42개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교사는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학부모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014년 자유 학기제 시범학교 80개와 희망학교 가운데 40개 학교, 일반학교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철균(2014)의 연구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 학생, 학부모 순

4) 고등학교 입시의 경우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 인천, 광주로, 그리고 1979년에 대전, 전주, 마산, 수원, 청주, 춘천, 제주 등 도청 소재지 지역으로 확대되고, 1980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익산, 목포, 안동, 진주로, 1981년에 창원 등으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무시험 추첨배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교 무시험 추첨 배정은 1990년대 들어서 후퇴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군산, 목포, 안동이, 1991년에 춘천, 원주, 익산이 평준화를 해제함으로 평준화가 후퇴를 한다. 하지만 2000년 들어서 다시 고교 평준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2000년에 울산, 군산, 익산이, 2002년에 고양, 부천, 안양, 과천, 의왕, 군포가, 2005년에 목포, 여수, 순천, 2006년 김해, 2013년에 안산, 의정부, 광명, 춘천, 원주, 강릉 등으로 확산되는 등 대다수 도시 지역이 고교 평준화를 채택하고 있다.

5) 고교 평준화 제도는 1980년 중반부터 확대되기 시작된 특수목적고 제도에 의해 그 근본 취지가 도전을 받기 시작한다. 원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할 때 평준화 추첨 배정으로 학생을 배정할 경우 학교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삼육, 성심, 중경, 국악, 서울예술, 체육, 철도, 부산해양고등학교’ 등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제 경쟁에 대비한 엘리트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특목고 제도에 1986년에 ‘과학계열’을, 1991년에 ‘외국어 계열’, 1998년에 ‘국제계열’을 추가했다.¹⁾ 그리하여 2013년 현재 4개의 과학영재고, 19개의 과학고, 31개의 외국어고, 7개의 국제고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02년 교육과정 자율권과 학생선택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를, 그리고 2009년에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하여 2013년 현재 49개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학부모의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에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깊게 깔려 있다. 지금과 같이 교과서 내용을 반복해서 암기시키는 전통적인 수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평가를 위한 수업이 아닌 교과의 본질을 추구하는 수업이 대입에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교과서의 틀에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할 때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아이들이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3년 전에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과서 중심의 수업과 교과서 내용에 따른 교과별 평가 체제 하에서 성취평가는 기존의 상대평가 틀 위에 성취기준을 억지로 끼어 맞추어 추가하는 하나의 잡무 역할만 하고 있다. 현재의 점수와 등수로 환산되는 정기 집필 평가의 틀과 성취평가제 틀이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상황에서는 정기 집필 평가와 점수로 환산되는 평가 체제가 폐지되고 교사가 자유롭게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학생의 특성을 서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평가 체제는 교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학부모에는 학력 저하의 우려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의 평가를 서술평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각 교과의 단원별로 주어진 성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체크하게 하는 평가를 기본적으로 한 후 여기에 학생에게서 발견된 특성을 추가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체제로 가면 된다. 이렇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평가하되, 학생들이 그 단원에서 달성해야 할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결과를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구성이 막연하지가 않고 평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그 교과를 통해 무엇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덜 가질 수 있다.

물론 각 교과와 단원별 성취 수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아직 우리 교육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영역이다. 지금 각 교과와 단원별로 제시되어 있는 성취 수준을 보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또 수준이 높아 실제 교실 현장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이를 개발

한 입장에서도 실제로 이것이 학교에서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이것이 형식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자유학기제의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성취평가를 제대로 활용한다고 할 때 성취평가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이 어디까지 살아날 것인가?

자유학기제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부분은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고 객관화된 지필 평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이 작용할 수 있는 틈이 없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교는 최소한 한 학기 동안의 교육과정을 새로 편성을 해야 하고, 교사는 시험 없이 해당 교과가 갖는 깊은 맛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수업을 설계해야 하고, 또 기존 교과가 아닌 교사가 직접 교과를 개설하고 그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 이제는 교사와 학교가 교육기획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시시범학교나 희망학교를 보게 되면 학교와 교사가 이런 훌륭한 교육기획력을 가지고 있었나 놀랄 정도로 참신한 학교 교육과정들과 선택 교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교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와 교사의 교육기획들이 동료 교사들과 이웃 학교에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교와 교사의 교육기획력을 단지 학교와 교사의 몫으로만 맡겨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기획력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퍼져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학교 현장 가운데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학교와 교사의 교육기획력들이 살아나오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싹들을 어떻게 잘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교육계 전체에 있어야 할 것이다.

5. 기타 논의할 사항

1)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도입이 되었다. 혁신학교는 주로 진보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학교에 모여 기존의 제도의 틀 내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학교 문화 변화를 통해 교육과 학교의 본질을 살려내는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진보교육감의 재정과 행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학기제는 보수적인 정권이 핵심공약으로 채택해 중학교 교육 개혁의 방안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서로의 출발이나 추진 주체가 다르다 보니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사람들과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혁신학교나 자유학기제나 둘 다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교육과 학교를 본질에 맞게 개혁하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범위에 있어서 혁신학교는 초중고를 포괄하지만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그것도 1학년 한 학기만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교사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를 동력으로 하는 반면 자유학기제는 지필평가 폐지나 국영수 축소 등 제도적인 변화를 기본 동력으로 하고 있다. 또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원하는 틀로 가는 반면, 자유학기제는 교육부가 틀을 제시하고 끌어가면서 교사와 학교 현장을 참여시키고 있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지만 각자 다른 방법론과 강점을 가지고 추진되는 두 개의 교육개혁 운동이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결합할 때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학교는 자유학기제가 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활용하고, 자유학기제는 혁신학교가 갖는 교사들의 자발성과 교사 문화 개혁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진보교육감 진영에서 ‘서울형 자유학기제’ ‘경기형 자유학기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2) 자유학기제가 잘 시행이 되어도 전환학년제 도입이 필요한가?

전환학년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중고등학교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틀을 벗어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집중해서 고민하고 탐색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춘기의 한 시기 동안 자신의 삶

을 돌아보고 자기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필요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발견이 된다. 아직은 이러한 전환학년제가 제도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제도적으로 열리면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쉼과 모색을 통해 건강한 자아와 미래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환학년제의 수요와 필요는 중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과 별도로 존재한다. 오히려 공교육이 정상화될수록 전환학년제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면 각 나라별로 전환학년 개념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환학년제가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잘 정착이 된 나라가 덴마크다. 그런데 덴마크는 유럽 여러 나라들 가운데도 공교육이 아동 개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존중하며, 교육의 본질을 잘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공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에서 전환학년제가 발달해 있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전환학년제가 공교육 부실이나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본래적 혼란과 정체성 확립의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 노력과 동시에 그리고 별개로 전환학년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히 교육부 차원에서 전환학년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뜻있는 교육청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한국 교육과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전환학년제 도입 시도들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6. 나가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가 처음 이 제도의 모델이었던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덴마크의 애프터스쿨과는 달리 기존 중학교 교육과정 개혁으로 방향으로 잡은 것은 한국 교육의 큰 행운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가 가져온 시험의 폐지와 국영수의 축소,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실질적 보장, 교사별 평가의 도입, 선택교과 확대 등은 한국 교육 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주장하고 애써왔지만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효과들은 한국 교육에 주어진 선물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학기제가 가져다 준 교육개혁의 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나 교육청 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에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박근혜 정부 체제 내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한 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전국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 박근혜 정부 내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이를 전국 중학교로 확대하고, 또 이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3년 과정 전체로 확대하여 중학교 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차기 정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자유학기제가 갖는 교육적 함의와 그 폭발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당이든 할 것 없이 차기 19대 대선 공약으로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3학년 전체로 확대하여 중학교 교육 혁신을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개혁을 이끌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자유학기제는 앞으로 우리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버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발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자유학기제의 가치와 가능성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를 캐내어 교육개혁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과 정치 집단은 과연 누구일지 기대가 된다.

〈부록〉 - 서울 M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소감문

자유학기제.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른 것은 '시험이 없다.' 라는 것이다. 물론 그 이상의 것들도 많았지만, 아마 그것이 가장 인상에 강하게 남은 것 같다. 그렇게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무지했던 내가 어느덧 자유학기제의 막바지에서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다. 지난 학기를 돌아보니 좋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슬픈 일도 많았던 것 같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많았던 학기였다. 그 희로애락의 중심에는 자유학기제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자유학기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설명은 많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수업에 진로체험이라니... 지금까지의 수업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그랬던 것 같다. 막상 시작해보니, 매우 재미있었다. 수업도 더욱 활발해지고, 과제도 자료수집과 발표위주여서 집중도 더 잘되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졌다.

예를 들어 음악시간에는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는 노래만 부르고 계속 이론수업만 하여 집중도 안 되고 수업시간이 지루했었지만,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모듈별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자신들이 직접 자료를 찾고 준비하니, 그 주제에 대한 이해는 훨씬 좋아지고,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다. 지루하던 수업시간이 재미있는 발표의 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음악의 더 넓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전에는 서양음악 쪽 (오페라, 뮤지컬 등)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판소리, 민요 등에도 흥미가 생긴 것이다. 그 음악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상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바뀐 수업시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기대가 되고 의미 깊었던 것은 다양한 선택프로그램과 진로체험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선택프로그램은 '소논문' 이었다. 체계적,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한 주제에 대해 상상력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쓸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약간 반복적인 면이 있어 후반부에는 그다지 배운 것이 없었다는 것도 아쉬웠다.

내 두 번째 선택 프로그램이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택프로그램은 '미니컴퍼니' 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제로 모의 창업도

해볼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중소기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애플, 삼성 등의 대기업에만 관심이 있었지, 중소기업은 말만 들어봤지 정확히 어떤 기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이 어떤 것인지, 또 대한민국의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해 알리기 위해 책도 써보고 싶어지고, 또 미래에 중소기업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두 선택프로그램은 나의 진로에 많은 영향과 도움을 주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택프로그램은 많았지만 내가 해보고 싶었던 다른 많은 선택프로그램들을 해보지 못한 것이다.

선택프로그램도 재미있고 유익하지만, 진로체험은 정말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학교밖에 나가서 실제로 직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인데, 나는 약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솔직히 약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크지는 않았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이고,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선부른 편견이었다. 약국에서 나는 정말 유익한 것을 얻었다. 일단, 약국에서 하는 일, 약사가 되는 법 등을 알게 되었다.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안에서는 처방전을 받은 대로 그때그때 약을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쁘다. 하는 일을 알게 된 것도 좋았지만 그것보다는 약사님이 주신 충고와 조언이 더 인상 깊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때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길 바랄게요." 이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정말 그렇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로 얻은 지식보다 이 말씀이 더 도움이 되고,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다. 진로체험은 그 직업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직업 현장에서 직업인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조언과 인생의 지혜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정말 큰 매력이다.

이렇듯 자유학기제에는 즐겁고 유익한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적잖지 않게 있었다. 먼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학습관리이다. 자유학기제라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도 비교적 없고 시험공부도 따로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습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부모님의 걱정도 커지고, 공부의 집중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 해도 잠깐 손에서 놓아서 그런지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서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부분을 찾아, 읽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 점점 집중이 잘 되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초등학교 6학년 교재나 심지어는 중2부분까지 찾아봐,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2학기 수학 평면도형 부분이 어려웠는데, 중2 부분에 비슷한 개념이 있어, 그 부분도 함께 보니 더욱 확실히 이해가 되었다. 자유학기제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학습관리에 도움을 준 것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진로 다이어리’이다. 진로 다이어리는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낌, 배운 점 등을 매일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이다. 처음에는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계속 쓰다 보니 오히려 습관이 된 것 같다.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하다보니, 자연스레 그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였다. 오늘은 무엇이 부족했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나아질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선택 프로그램이 있었던 날에는, 그 시간에 배운 점과 느낀 것을 다시 되돌아보며, 나의 진로에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지 생각해 보며 진로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다. 예를 들어 미니 컴퍼니에서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배운 날이면,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소기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길 직업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직업이 많을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번에 쓴 다이어리는 내게 정말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자유학기제가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학습적인 효과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가족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과제나 수업에서 조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여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훨씬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프레지 등을 만들 때 아무래도 학교가 끝나고도 만나서 같이 하니, 친밀도가 더 높아진 것 같다. 가족들과는 자유학기제가 되며, 부모님의 꿈이나 직업 환경 등을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 하면서, 대화의 소재가 많아지고, 자연스레 부모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부모님의 조언도 함께 얻을 수 있어 좋았다. 저녁 시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부모님의 일상에 관한 얘기도 하였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험이 없으니, 저녁에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많아, 산책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영어 드라마 감상이다. 영어 드라마 감상은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거의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되며, 영어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미래에 외국에 나가서 외국 친구도 많이 사귀고, 외교 관련 직업을 가지려면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자유학기제에 영어드라마를 감상하며 나의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일석이조였다. 앞으로도 시간을 종종 내서 영어드라마를 보는 것을 꾸준히 해 나가,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다.

지금까지 나의 지난 학기를 돌아봤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어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시간적 여유도 많아서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넓은 직업의 세계를 탐색해볼 수 있었다. 또, 내게 맞고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방법도 새로 발견하여 2학년에 올라가서도 꾸준히 지금처럼 공부를 해나가려 한다. 이번 자유학기제에서 내가 얻은 것은 많고, 이 수기에서 담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느끼고 얻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누가 시켜서 공부를 하고, 직업을 정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로체험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못하는 것이고, 선택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이 나서서 찾아보지 않으면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미래에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형인간이 되고 싶다. 그것을 알려준 자유학기제는 내게 정말로 인상적이었다.

토론1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특임센터 소장

[자유학기제의 미래와 중학교 교육 혁신의 과제] 에 대한 토론문

발표문은 ‘들어가는 말’ 말미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자유학기제 정책의 추진 경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가진 잠재력과 파급력을 충분히 살려 중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 전체를 혁신하는 정책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안한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 자유학기제에 관한 논의의 핵심 쟁점을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과 ‘전환학년제 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규교육의 변화를 통한 학교교육 혁신’과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⁶⁾의 도입을 통한 학교교육 보완’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정규과정 중 1학기를 정해 중간, 기말고사를 폐지하고 토론 등의 새로운 수업방법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환학년제는 학교교육이 제공하기 어려운 폭넓고 다양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정규과정 밖에서 제공하는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전환학년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선택프로그램 등에서 일부 아이디어를 시사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전환학년제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환학년제가 우리나라로 보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제공되는 정규교육 밖의 프로그램으로 출발해서 정착되고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2014년 5월 30일 하자센터에서 발표한 ‘자유학기제와 전환학년제의 국제비교’ 글을 참조하기 바람. 이는 원탁토론아카데미(2014년 3월 15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둘째, 자유학기제가 오랜 금기를 깨고 보여준 희망들로 ‘시험의 폐지’, ‘국영수 축소’,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실질적 보장’, ‘선택교과 확대’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체험활동과 선택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학교와 사회의 파트너십 형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 제시한 네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지만, 이들은 학교 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벽이 낮아지고 서로 협력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경험을 통해 볼 때, 학생들이 행복한 가운데 꿈과 끼를 키우며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혁신은 물론 학교와 사회의 협력을 통한 학습생태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이 살아난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를 통한 학교의 교육력 향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들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개념을 만든 반두라(Bandura)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학생을 성공적으로 교육하고 학생의 인지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권위적 통제보다는 설득적 방법을 사용하고 학생의 내적 흥미와 학업적 자발성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교사들에게 수업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사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사연구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자유학기제가 2016년까지 성공적으로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고, 나아가 학교혁신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의 추진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이 고교 진학을 준비하는 2018년까지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고교 입시가 바뀌고, 나아가 그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2021년까지는 대학 입시도 바뀔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를 모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통 3년 내외를 내다보고 대입제도를 개

선택하려다 보니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인해 논란이 커지면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거나, 학교에 비해 사교육이 빠르게 대응하게 되어 사교육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21년도에 시행할 대입제도를 마련해 간다면 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 등을 통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들 또한 제도 변화로 인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2

서용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금기는 더 깨져야 한다.

: 자유학습의 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자유학교로

1. 자유학기제는 ‘벼리’이자 ‘행운’이 될까?

발제문에 대한 첫 감정은 ‘자유학기제가 벼리이자 행운이 될까?’였다. 한마디로 말해 흥분 속에 물음이 들어있는 꼴이다. 걱정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년 간 자유학기제가 보여준 힘은 한국교육의 희망을 이어갈 중요한 벼리가 될 것 같고, 어쩌면 교육 주체와 시민에게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교육 행운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시 공부의 전모를 조망하기도 하고, 정신적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실제로 교육하는 ‘교육 오아시스’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선 것처럼, 정병오 선생님의 발제문은 자유학기제라는 정책과 실천을 넓고 깊게 볼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라는 정책 탄생부터 현재 상황까지, 교육과정 개혁으로부터 전환학년제와 8년 연구까지, 자유학기제가 보여준 금기 깨기와 희망까지 한 편의 정책 파노라마 같았다.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왜 중학교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약속했는지, 다양한 논의 속에 교육과정 개혁을 잡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평가 혁신의 흐름을 갖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언급해주었다. 거기에 더해 희망 교육의 꽃을 피우기 위한 선결 과제와 논의 사항까지 잘 정리해주었다.

발제문의 끝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과제와 논의였지만, 사실상 핵심은 벼리와 행운에 대한 울림이었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기반으로 한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에 대한 통찰은 벼리와 행운을 안겨다 줄 구체적인 선물로 보였다.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의 강점과 약점을 장단기 희망 교육학의 선상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극복할 것인가이다. 정책과 실천의 흐름을 보다 유기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희망 교육학의 담론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이다.

2.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문제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원불만제로팀에 접수된 학교 현장의 반응을 보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취지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세부적인 운영과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아래 세 가지 의견이 의미 있게 제시된 내용이다.

“자유학기제는 평가의 부담에서 일단 벗어나 있어서 좋아요. 이걸 통해서 평소 시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교 수업을 배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배움 자체에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 기회입니다. 시험에 나옴고 성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억지로 공부했는데, 이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과통합이나 융합 등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구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프로젝트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 교사들은 협력적으로 토의하며 새로운 도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은 자유학기제 취지 자체가 교육적으로 좋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대 계기로 판단하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의 협력과 상시적인 프로젝트 수업과 교과 통합이나 융합을 적극 시도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수업을 즐거운 배움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유학기제가 갖는 취지의 긍정성과 현실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매우 훌륭하지만, 문제는 항상 현장에서의 실천 부분입니다. 교사들의 재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개인의 지역 자원 섭외 역량과 프로그램 운영의 묘에 따라서 프로그램 분위기가 매우 크게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진로탐색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 자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청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문화에 대한 탐방 및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자유학기제로 끌어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년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분 시행으로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점차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은 정부 정책이 제시되었을 때, 가장 많이 우려하는 지점에서 등장하는 의견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의 우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좌초되거나 외면 받았던 역사를 기억해 보면, 이런 의견 제안에 대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정책과 실천의 실질적인 조우이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좋으니까 현장에서의 실천과 잘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이다. 실천 상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지역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연계, 정책의 속도 조정 등이다. 이를 좀 더 쉽게 바꿔 말하자면, 교사에게 업무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한다. 다시 말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던지는 말로 지원 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학교 현장의 실천 호응과 함께 갈 수 있는 속도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된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꿈과 끼로 사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의 열풍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등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중학교 내신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를 내년에 50%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후년 전면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유학기제를 3학년 2학기에 실시했으면 합니다.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까지 꿈과 끼와 관련된 진로교육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활동하면서 보고 느끼면서 찾도록 한 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자유학기제가 기획되었을 때 우려되었던 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유학기제가 진행될수록 사교육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나아가 열풍 수준으로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학부모의 교육 열이나 대학 서열화는 물론 입시와 수능 위주의 교육 흐름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에서 3학년 2학기를 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교사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이대로 가다보면 교사의 업무 가중이 심각해질 수 있다. 사실 자유학기제와 같은 시간 정책은 교육을 주체로 만드는 과정이고 학교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하지만 학교 여건 상 이 지점은 혁신학교가 고민했던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 변화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우수사례 발표가 예전 연구시범학교 발표의 관행처럼 비춰지고,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학교 현장의 숨결을 멎게 하고 광

풍으로 휩쓸어갈 것 같은 두려움은 여기서 비롯된다.

둘째, 진로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이 모호한 채로 남을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진로교사가 확대되고 상당한 연수 등의 노력으로 역할과 정체성이 정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학기제에 온전히 결합되는 일은 또 다른 일이다. 자유학기제에서 진로교사가 교과 교사들과의 화학적 결합이 울퉁불퉁한 면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설계 뿐만 아니라 문화 형성에 세밀한 해법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교사가 진정한 ‘진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과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일회적인 체험학습 내지는 형식적인 활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부분은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학교에서의 고민과 실천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일회적인 체험활동 내지는 단순 체험학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체험 활동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집단 토론은 물론 사고와 성장의 깊이를 더해주는 방향으로 잡혀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로 인해 다른 학기나 학년, 급별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벌써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학기에 대한 고민이 학교에 적지 않다. 수업의 변화, 평가혁신,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와 학교 모두를 바꾸는 작업이기에 한 학기에 머무르면 그대로 정책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다른 급별 학교와 학년에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유학기제만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 위주의 정책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교사 자율성을 보장하는 길을 법과 제도, 생활과 문화 측면 모두에서 일궈내야 한다.

다섯째, 사교육의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사교육으로 활용하거나 입시교육으로 변질시키는 학교가 등장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하더라도 방과 후나 주말에 더 많은 사교육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입시와 수능 위주의 교육을 고민한다고 한다면 자체에 국가 공교육 틀 전체를 고민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학교 주변의 교육 인프라가 취약하거나 발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현재 인프라나 프로그램 과정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진로탐색이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어렵다. 이는 교사, 학부

모,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의 합심이 필요하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일곱째,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 동아리 활성화가 약할 수 있다. 학생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학생들이 동아리를 마음껏 개설하고 이에 대한 양질의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의 구축이 절실하다.

3. 혁신교육과 자유학기제와의 오묘한 만남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유학기제라는 희망 교육학 정책이자 실천이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오묘한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경로에 따라 내년엔 50%만 시행해도 되는데, 제주나 광주 등은 미리 100%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전북의 자유학기제는 경기에서 혁신학교를 일군 교사들을 강사로 대거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정책 자체에도 미온적이다. 정작 혁신교육의 산실인 경기도는 혁신학교 따로, 자유학기제 따로였다.

이렇게 혁신교육과 자유학기제가 결합되어야 하는지 공론장에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무시하는 등 다양한 흐름이 있지만, 두 정책을 결합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경기 같으면, 혁신교육이 실천 15년과 정책 5년을 걸쳐 전개되어 왔고, 자유학기제는 정책으로부터 실천까지 2년 남짓 진행되었다. 두 정책이 동시대 펼쳐지는 것도 오묘하고, 실천에서 중첩되는 현상도 오묘하며, 이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오묘하다.

정책과 정책이 결합되는 현상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흐름이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교육부를 위시한 중앙정부의 기획과 추진이 거의 전부였다. 하지만 주민직선 교육감이 선출되고 나서는 대립과 이격의 흐름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폭력 생활 기록부 기재 사건’이다. 교육부가 지방과 현장을 덮으려는 정책도 있었다. ‘복수담임제’가 그것이다. 하지만 복수담임제는 불신의 씨앗만 남긴 것처럼 처절하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 정책과 자유학기제 정책이 만나려고 하고 있다.

‘경기혁신형 자유학기제’는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응답이다. 담론(혁신)과 담론(꿈끼), 지방과 중앙, 혁신학교 1기와 2기라는 교차점에서 정책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시기상으로 보면 혁신교육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가 먼저 있었고, 이후에 자유학기제가 나왔다. 현재 전국에 걸쳐 있는 혁신학교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서용선, 2014)

[그림 1] 전국 혁신학교 현황

경기혁신형 자유학기제는 혁신교육으로 자유학기제를 끌어안는 모습이다. 과정에 펼쳐질 이야기와 결과에서 나타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의 변화가 궁금하기 그지없다. 아래 표는 혁신학교 정책과 자유학기제 정책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표 1〉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의 공통점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input type="checkbox"/> 자율경영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공유와 책무성 제고 • 권한 위임 체제 구축 •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input type="checkbox"/> 학교의 자율성과 수평적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지지 • 각 부서, 교과와 유기적 연계 • 학교 구성원의 목표 공유
<input type="checkbox"/>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 학습지원 환경 구축 	<input type="checkbox"/> 전문성 개발과 학습공동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연수 • 자유학기제 TF팀 조직 운영 • 학습모임과 워크숍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 대외협력과 참여 확대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배움과 성장의 협력자 •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 다양한 체험 기회 확대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input type="checkbox"/> 경기도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재구성, 특성화와 다양화 • 배움중심수업(자기생각만들기) • 평가혁신(교사별 평가, 논술형 평가)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공통과정+자율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재구성, 진로탐색활동 강화 •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 개선 • 핵심성취기준 도달여부 파악

(이동섭, 2014에서 재인용)

사실 우리나라에 교육 정책과 정책이 결합된 사례는 드물다. 그것도 지방의 정책과 중앙의 정책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는 처음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교육정책의 주된 흐름은 중앙 정부의 일방향 정책 추진이었지, 지방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흐름은 없었다.

이제 두 정책이 마주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2015년에는 50%, 2016년에는 100% 전면 시행을 추진하면서 두 정책의 결합은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그 결합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혁신교육의 정책 흐름을 살펴보자. 두 가지 그림은 혁신교육 정책의 전반을 보여주는 핵심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경기도교육청, 2014)

[그림 2] 경기 혁신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이 그림은 혁신교육의 정책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행정에서 학생으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정책 전환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위 그림은 사실상 혁신학교를 실천적으로 이루고 정책을 정교화해 가면서 이후에 정리한 그림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이 먼저 있고, 경기혁신교육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기혁신교육의 면모를 보여 주는 그림이 혁신학교 일반화와 관련

된 아래 그림이다.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2014)

[그림 3] 경기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체계도

이 그림은 혁신학교의 기본 모형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가야 하고, 교육청이 어떻게 조직화하고 경로를 잡아주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자발적인 공동체의 구축(민주적 자치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물론 자율 경영 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4. 교육패러다임의 전환과 학습생태계 변화

정책 추진 기간이 짧은 자유학기제는 혁신교육 정책과 비교하면 내용은 부족하고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취지 또한 혁신교육과 비슷한 유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아래 그림이 말해주는 것은 혁신교육 정책처럼 자유학기제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 방향’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은 혁신교육 정책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할 만한 용어들이다. 이런 취지로 실제 한 학기를 평가 없이 지내는 자유학기제는 1970년대 하루 ‘자유학습 날’을 실시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도 엄청난 정책적 시도임에는 틀림없다. 학생 참여나 유연한 교육과정 적용 등은 바로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



(교육부, 2013)

[그림 4] 자유학기제의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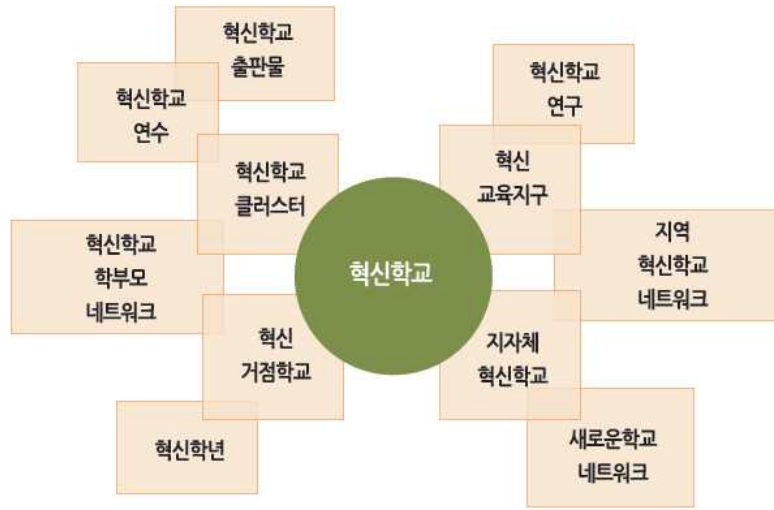
여기서 교육부가 밝힌 도입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면서 시작된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실현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자유학기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교육부, 2013)

‘공교육 정상화’, ‘시험 부담 완화’, ‘학생 참여’, ‘다양한 체험활동’ 등은 혁신교육 정책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흐름이다. 혁신학교로 대변되는 혁신교육은 사실상 공교육 정상화가 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학교의 기획들을 잘 살펴보면, 입시 위주, 강의식 위주, 암기 위주의 흐름을 보다 역동적인 흐름으로 정상화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참여와 다양한 체험활동이 강화되는 방향을 갖게 된다. 경기혁신교육의 사례와 실천과 정책을 주가 되게 참고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이런 싱크로울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이제 혁신교육과 자유학기제가 보여줄 학습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용선, 2014)

[그림 5] 혁신학교가 만든 교육생태계 구축



(최상덕, 2014)

[그림 6]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습생태계 구축(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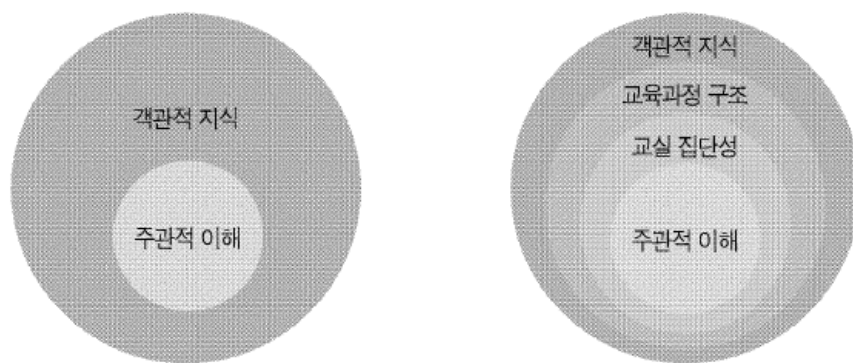
첫 번째 그림은 혁신학교로 변모된 연계 흐름을 살펴본 혁신학교 생태계 지도를 그려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만들어질 학습생태계의 모습을 그려본 것이다. 서로 다른 점은 첫 번째는 이미 형성된 혁신학교 생태계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려질 자유학기제 생태계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혁신학교의 변화를 중심으로 실제로 일구어온 모습이지만, 여기

에는 자유학기제에서 만들어갈 생태계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이 그 예이다. 마을학교로까지 나간 혁신학교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학교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혁신학교에서는 아직 학교를 넘어선 흐름이 크진 않다.

이 말은 학교 변화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임을 반증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 정책의 핵심인 혁신학교는 적잖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혁신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는 첫째, 교사들의 자발성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수업과 교육과정을 바꾸고, 학생들의 생활문화도 의미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둘째, 학교장의 새로운 리더십도 돋보인다. 교사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에 서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장 리더십을 구현하고 있다.

두 번째 자유학기제 그림에서 부족한 점은 학교 변화가 없다는 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학교에 한 학기를 통째로 자유 시간을 부여했다고 해서 학교 변화가 이뤄지진 않는다.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교육과정’과 ‘학교 조직과 문화의 변화’에 달려있다. 특히 교육과정 재구성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중학교들은 예전에 해보지 못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구성주의교육학의 흐름을 세밀하게 나눈 복잡성교육학(complexity education)의 연구 결과로 교사, 교과, 교육과정, 학교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인철·서용선 역, 2011)

[그림 7] 구성주의 교육 내부 분석

이는 ‘교육과정’을 구성원들이 제대로 바꿔야 ‘학교’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다시 ‘교과’ 수업과 ‘교사’가 바뀌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바꾸고 학교 조직과 문화를 바꿨던 실천은 자유학기제가 어디로 가야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된다.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네트워킹 하는 현재 상태에서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이는 결국 혁신형 자유학기제를 지향하는 바는 ‘교육공동체’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아래 그림으로 보고자 한다.



(서용선, 2014)

[그림 8] 교육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

5. 발제문에 대한 나의 견해와 질문

가장 먼저 발제문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이와 관련된 질문은 이렇다. 정병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과 기대에 대한 거품빼기’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축소’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이 “실천과 민심”으로부터 이뤄졌으면 한다. 정책을 만든 교육당국은 미리 성공을 점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추진한 사람들의 성공이나 정책 하나의 성공으로 머무를 수 없다.

다시 말해 복수담임제, 스포츠클럽, 집중이수제, EBS 연계 등 책임지지 않았던 기존 풍토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패하면 실패한대로 성공하면 성공한대로 학교 현장을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실천과 민심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의 성공도 거기에 멈춘다는 말이다. 교육당국이 거품을 빼고 괴리를 축소하기 위한 세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려면 그냥 현장의 움직임을 기다려주고 묵묵히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한국교육의 모순과 가능성은 ‘욕망의 교육학’과 ‘희망의 교육학’ 사이에 있고, 그 사이에는 입시, 대학, 교육열, 사교육이 놓여 있다. 자유학기제도 이 속에

서 몸부림치는 현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품빼기와 괴리 축소를 위해 제도 자체에 대한 인위적인 접근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자유학기제의 지속가능성과 확대 발전을 위한다면 주변의 욕망의 교육학 제도(입시, 대학, 교육열, 사교육)를 건드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선지원 후추첨’ 대안을 적극 지지한다. 문제는 상향식 평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평준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황폐화 되어가는 일반고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 정책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다. 자유학기제가 혁신교육과 만나지만, 고교다양화 300과는 치명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다. 이 부분이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다. 이는 ‘성취평가제 내실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공감하나 역시 ‘수능 자격고사화’와 맞물려야 한다.

성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반대한다. 물론 발제자는 성취기준의 추상화, 높은 수준, 형식적 적용을 문제로 제시하지만, 현재 학교와 교사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과정 대강화’와 ‘교사 자율성 확보’가 급선무이다. 자유학기제 기획 회의에서 ‘핵심 성취기준’이 교육과정 대강화로 가는 길인가라는 질문에 교육당국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현재 자유학기제 내부를 건드린다면, 성취기준에 대한 대강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을 여쭙고 싶다.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은 혁신학교 실천과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전국화 되어가는 혁신교육의 흐름을 교육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좋은 정치는 좋은 민심으로부터 나오는데, 혁신교육은 그 민심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고리로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과 통큰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섰으면 한다. 그 이유는 정병오 선생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전환학년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학기제는 공교육의 품을 변화시키고 넓히는 첫 단추이다. 혁신교육은 이를 지방에서 추진한 흐름이다. 경기도교육청 같으면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통해 전환학년제와 같은 ‘섬표학교’를 위한 꿈의 학교를 추진 중이다. 학교를 벗어난 학생, 새로운 교육을 원하는 학생, 쉬면서 삶과 세계를 되돌아보고 싶은 학생을 이제는 공교육이 품어야 한다. 전환학년제는 입시와 수능의 흐름을 낮추면서 희망의 교육학을 부르는 자유학기제와 다른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추가로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에 그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1970년대 학생들에게 하루 숨 쉬게 만들어준 ‘자유학습의 날’이 자유학기제를 거쳐 자유학년제로, 자유학교로 나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의 금기, 우리 학교속의 금기, 우리 제도속의 금기를 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2014), “경기혁신형 자유학기제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경기도교육청.

_____(2014), “교육감 발표자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2014),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제16대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교육부(2013), “자유학기제 홍보 PPT”, 교육부.

서용선(2014), “혁신학교, 관료주의와 외풍을 넘어 교육공동체로”, 교육시선오늘 8호. 경기도교육연구원.

_____(2013), 『혁신교육 미래를 말하다』, 맘에드림.

_____(2012), 『혁신교육 존듀이에게 묻다』, 살림터.

이동섭(2014), “혁신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권역별 설명회, 경기도교육청.

정진화 (2013). “교사주도 학교개혁 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상덕(2014),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방향 & 교육과정 운영”,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사 대상 컨설턴트 양성 연수 자료집』, 교육부.

최상덕·이상은(2013), 『2013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Ball, S., & Junemann, C. (2012). Networks, New Governance and Education. Chicago: The Policy Press.

Davis, B., & Sumara, D. (2006). Complexity and Education: Inquiries Into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현인철·서용선 역(2011), 『혁신교육 철학을 만나다: 복 잡성교육 이론과 실천뿌리를 찾아서』, 살림터.

Hargreaves, A., & Shirley, D.(2009). The fourth way: the inspiring future for educational change. Thousand Oaks: Corwin Press.

Sullivan, J. Sullivan, J. (2010). Emergent Learning: The Power of Complex Adaptive Systems in the Classroom., 현인철·서용선·류선옥 역(2013). 『세 학급이 들려주는 창조적 집단지성학습: 교실 속 복잡성의 힘』. 씨아이알.

녹취록

사회 :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자 : 정병오(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토론자 :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특임센터 소장), 서용선(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1.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발제

2.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특임센터 소장 토론

3. 서용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4. 질의응답

김진우: 발제자가 토론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오: 고입문제 푸는 것이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입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자유학기제 확산은 불가능하게 돼요. 중1에 간혀 버리게 됩니다. 중1담임들이 ‘너희들이 지금은 자유롭지만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입문제에 대한 비전이 절박하다고 봅니다.

서용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내부적인 실천이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희학교만 보더라도 열심히 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중1을 맡긴 것입니다. 내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1학년 했던 사람들이 또 1학년을 해야하는 것이죠. 자유학기제는 돌릴 수 있는데 중2, 3은 여전히 변하지 않게 됩니다. 중1 담임했던 사람들이 중2, 3을 해주고 중1은 새로운 사람들이 해줘야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새학기에 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실천력이 적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범학교로, 2014년도에는 많은 학교가 했는데 실제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가 정책의 성패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올라가는데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

인지, 방과후를 확대해서 돌려야 하는 것인지,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인기: 개인적으로 전환학년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도 심포학교 준비모임도 했었고, 하자센터가 중심에 서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의 실제적인 고민은 지금의 학제 안에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학교 밖 아이들에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시도의회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있는 상황이라서 평생교육기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평생교육기관에 돈을 쏟아 붓는 방식에 대해서 시도의회의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정부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꿈의 학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학교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고민은 선생님들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시군구 교육청에 2억씩 줘서 교육청이 지역의 예술단체나 협동조합 쪽에 위탁사업 형태로 방과후를 돌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중학생을 위한 방과후지만, 자유학기제가 전면화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위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자유학기제가 발전해갈 수 있을지, 마을이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자체가 고민하던 부분들과 연결될 지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자유학기제가 풍성해지고, 함께 돌아갔을 때 교사들도 편한 것이죠. 자신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닌 맡아서 해주는 이 지점에서 제일 큰 고민은 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때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학교교육과정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공제회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위탁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그 단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면 하겠다는 단체들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차원에서 풀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최상덕: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시점은 10년, 20년 후 입니다. 10년, 20년 후의 상황은 생각해보면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학제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둘이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길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를 생각하면 처음에는 완전히 제도권 밖에 있다가 상당부분의 학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도 많아요. 앞으로 교육기관이나 교육방식은 상당히 융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현재는 정규교육과정, 정규과정 밖이라고 하지만 이것 간에 긴밀한 협력 방식들은 우리가 노력한다면 많이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규교육과정 안에 학교 밖에 있는 전문가, 기관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밖에 있는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그것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와 다른 제도와 관계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처음부터 이야기 한 것이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시도교육청 자율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필요가 없다, 경기도나 서울은 혁신학교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유학기제를 발전시켜 나가면 되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자신들의 지역적 경험을 살려 다른 형태로 매칭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자유학기제를 규정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화: 시간에 대한 고민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전제를 단 것이 의미는 있고, 가능성은 있지만 고교 입시 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더 좋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나머지 전제조건이 안되었을 경우에 자유학기제가 그래도 의미 있게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중학교 중에서도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1학년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하셨는데 2016년도에 전면화 되었을 경우에 다수의 선생님들이 기획력이 안만들어진 형태, 본인들이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복답제의 경우 왜 학교에서 무력화되었는가, 준비된 사람, 학교였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시간적인 문제 2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간도 짧은데 정책이 내려오니까 맞물리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되는, 좋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혁신학교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혁신학교에 있을 때와 일반학교 혁신으로 갔을 때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자유학기제가 희망학교와 희망선생님이 하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정부가 펼쳤을 경우 어떤식으로든 무력화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면 실제 2016년도

전면도입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뮬레이션 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자유학기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면화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최소한 교육청단위로 판단해서 속도조절을 하라고 해야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병오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뒤의 전제가 안되었을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입시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미있게 학교에서 해 갈 것이냐, 사장되는 정책이 될 것이냐 하는 맥락에서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오: 만족도는 2013년도 42개 학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입니다. 2013년도 실시학교는 희망학교가 많았습니다. 2014년도 2학기는 700여개의 학교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구성원은 원치 않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어차피 해야하는 것 아니냐 해서 한 학교들입니다. 올해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한 것을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의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를 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면화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입문제가 안풀리고 한 학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된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학기의 경험도 소중하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1학년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선생님들 중에도 숨통이 트이길 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라도 키워주고 융화되면, 2, 3학년 선생님들이 두렵지만 1학년이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향력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용선 선생님이 서울은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목동, 강남의 경우는 학교가 신경을 안쓰고 학부모들이 다 합니다. 직업선택을 할 때 학부모들이 알아서 3, 4명씩 모아서 아빠들 직업이 좋으니까 데리고 가고 해요. 학생들은 경험을 하지만 학교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학교는 그곳과 비교할 때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아봐서 엮어서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사의 역량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골은 더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서용선: 지금 참학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해보신 분들, 초

등은 많죠. 진정한 학력이란 어떤 것인지, 단순히 외워서 쓰고 점수받는 것은 학력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교사들이 상당히 반영합니다. 그것을 체계화, 제도화시키고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사실 부족해요. 정부가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학부모에 대한 홍보, 설득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반대로 했을 경우에도 해야 하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한 것들은 최소 6개월 정도 경험하면 평생간다고 합니다. 2년 정도를 경험하면 그것은 평생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협력학습을 하면 6개월만 했다고 그 다음에 안좋아지지 않다는 것이죠. 학습에 대한 DNA는 아주 오래가고,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시가 안바뀌는 상황이라도 꼭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청이 속도를 내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새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카오스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카오스는 매우 중요한 창조가 등장하게 되는 시기인데 지금까지는 이 카오스 상태를 관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수담임제가 카오스 상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정책의 카오스 상태를 현장교사들도 봐야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정책을 맡으신 분, 교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이유가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요. 구성주의 다음 논의가 생태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태주의 관점으로 교육과 정책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를 일반화한다고 하면서 2013년도에 경기도가 클러스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작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밀한 연구나 현장의 판단이 아니고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서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은 혁신공감학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용어를 왜 바꾸었는가, 이게 무슨 공감인가’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유희의 수준이지 실천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도 그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장 교사도, 교육개발원도, 교육부도 잘 보면서 함께 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개발원에서도 현장을 많이 다니지만 만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해가면서 카오스 상태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질문의 답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혁신형 자유학기제는 핵심적으로 여기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오후에 자율활동이라고 해서 밖에 많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학기제. 평가가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오후는 밖에 나간다.’ 이것이 단선형처럼 되어버렸는데 핵심이 교육과정

있으면 기존 교과재구성이 아주 의미있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학교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고, 선생님들의 역량은 어떠하며, 그래서 우리가 잡은 학교교육의 비전에 맞게 교과재구성은 이렇게 설계된다는 것이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하며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형태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자율활동을 2시간으로 줄이고 앞에 교과수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있게 하는 것이죠. 기존의 정부안대로 하면, 정부의 샘플을 따르면 오전은 평가는 없는데 평상시처럼 수업을 하고 오후는 다양하게 하는데 이것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의미있게 수업을 할 것이냐. 음미체가 다 오후로 넘어가서 오전 음미체가 사라지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음미체도 기존교과에서 의미있게 하되 오후에 음미체로 성장시켜준다고 하면 그 때 자율활동을 좋은 곳, 학부모가 데려가는 곳이 아니라 왜 그곳을 가야하고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정하는 이것이 기획력입니다. 이런 부분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한 흐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유학기제를 뒤흔들지 않겠다, 기다려주겠다, 기다려주겠다, 교사들의 기획력이 살아날 수 있는 방식의 연수나, 컨설팅 장학 이런 것은 안먹힌다고 봅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 교사들의 자생적 네트워크, 교사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다른 모임과 연대하고, 또 한가지는 교사연구자인데, 연구년 정책이나 교원행정업무 경감정책이 자유학기제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책입니다. 교육계 차원의 정책융합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우: 단순화시켜서 말하긴 그렇지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학교 모델, 밖으로 돌리는 학교 모델, 이런 식의 유형 구분에 따른 실태 조사가 되고 있는지요?

최상덕: 초기에는 교육부 내에서도 자유학기제가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정병오선생님은 전환학년제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미국에서 전환학년제는 진로체험 중심입니다. 진로체험이 중요한데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로체험이 폭넓은 부분이고 직업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직업체험을 가지고 학교를 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많은 시간은 수업인데 수업이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유학기제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수업혁신입니다. 그리고 체험의 부분에 있어서 학습과 체험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체험이 중요한 학습의 방법이 됩니다. 교과재구성은 수업이고, 교과재구성은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수업입니다. 교과수업을 통해서 채워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활동을 통해서 채워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과 체험이 균형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체험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서용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소장님의 말씀이 자유학기제를 초반에 실시한, 해보고 싶어하는 곳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면, 좀 해보거나 많이 해본 곳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다 논다는, 체험시키느라 학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프로젝트형으로 의미, 수업을 전환시켜야 하고, 그것의 핵심은 소집단 토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아이들의 사고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해주는 것이 서술형 평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연계, 구축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수업할 때 이미 교육과정과 평가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정책도 취약하고 따로 놓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를 보면 교육과정 정책, 수업 정책이 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움직여 주고 그것의 중심은 아이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발을 딛고 있는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삶과 마을에서 같이 움직여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교사의 기획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교사 연구자, 또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뒷받침 되지 않으면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상덕: 교과가 만들어지려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교사가 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와 학생의 요구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교육과정의 변화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정규교육과정 안에 넣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의 자기계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아무리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교과구조 안에서는 지역사회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프로그램을 해 놓으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은 작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만 강조했지 가능하게 하는 요인, 기제에 대한 사고는 약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하영: 저는 시흥에 있는 혁신학교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자유학기제로 경기도에서

정책토론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드는 생각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교사들은 내년에 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혁신학교 선생님들이니까 혁신에 대해서 개방적이신데, 좋은 취지라는 것은 아시면서도 실질적으로 겁을 먹으셨어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해야 하니 마음의 준비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어필하시고, 생각이 열려 있고 합리적이신 분이신데도 ‘주변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긴 해야겠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학교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물어가자는 느낌이 듭니다. 정병오선생님께서 해보셨으니까 저희가 진짜 해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점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마을이랑 협력해야 하고,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학교에 있다보면 지역사회에 좋은 인프라가 많이 있을텐데 평교사로서 관리자나 부장님들이 저희에게 그런 자율권을 주실까? 라는 불신감도 있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 너무 닫혀있으니까 자유학기제를 위해 하라고는 하지만 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닫혀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을 하나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진돈 가지고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학교가 정말 개방이 가능한가 불신감이 들었습니다.

정병오: 저는 자유학기 담당교사는 아니고, 연구부가 주관하고 거기에서 저는 1학년 기획담당입니다. 행사, 체험학습 나갈 때 주관하는 역할이죠. 당연히 자유학기 담당계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 외의 선생님들의 경우는 업무량이 비슷합니다. 다만 선택교과를 개설하신 분들은 새로운 교과를 개설과 함께 수업은 원래 해오던 것처럼 합니다.

김진우: 선택교과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인가요?

정병오: 아닙니다. 그 사람들 수업 시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논문을 했기 때문에 개별지도를 해야 하니까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것이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교과의 경우 학급당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렇기에 외부랑 연결되는 반이 4, 5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저희는 하자센터에 돈 내고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2개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나가는 것을 안할 수 없습니다. 안하면 학교 내부 인력으로 다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보고 자유롭게 개설하라고 하

면 선생님들 중 좀 괜찮은 것을 개설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과장된 소문이 돌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 두명만 어렵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이 가장 편합니다. 수업하고 보내는 것이 제일 편한데 밖에 데리고 중간, 기말 때 나가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담당계가 하고 제가 물밑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김진우: 한 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니까?

최상덕: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3500~4000만원, 희망학교의 경우에는 2000만원정도입니다. 전면확대가 되었을 경우 일단 희망학교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종화: 우리 사회가 체험학습을 감당할 수 있는가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에 있는 100개의 학교가 다 하자센터로 가겠다고 했을 경우, 이런 것이 괴담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전면 실시 했을 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하는 의미있는 것을 하기 위해 나가려고 할 때 교사입장에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 더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또 묻고 싶은 것이 지역 담론적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역교육 공동체로 확대시켰을 때 똑같이 준비 안되어 있는 지역사회와 맞물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고원형 대표가 왔을 때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가서 지역과 연계시키려고 했는데 지역사회가 문제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것과 연결되는데 전면 실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병오: 저는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체험학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나가도 되고 학교에서 해도 됩니다. 수업혁신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없으면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강사비를 쓰면 됩니다. 강사비를 써서 외부 강사를 2강좌 정도 돌리는 것이죠. 저는 체험학습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화 : 오전엔 수업하고 시험없고 나머지는 방과후학교 이렇게 쉽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체험학습을 강조해도 안되지만 그것을 학교에 이야기

해버리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홍인기: 학생들의 선택이 얼마나 들어가 주었고, 실제로 얼마나 다양한 체험들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평가해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재정 지원할 때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덕: 지금 초월형 자유학기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한 부분은 진로집중학년제인데 나중에 평가가 될 것입니다. 거기의 중요한 평가 중 하나는 진로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체험업체 발굴하는 것에 관심이 갑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이 중심이 아닌, 체험발굴이 교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로체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교육부에서 체험처 제안을 하면,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체험처의 폭은 넓히도록 가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직접체험에 한정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체험으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좋은 체험의 장소, 공간들을 많이 집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느끼는 것 보다는 자유학기제하면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이 ‘지역사회도 좋은 곳이 많이 있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학교에 대해서 ‘학교 문을 열고 있네’ 이렇게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나가야 하는 방향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렵다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힘들더라도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홍인기: 어떤 강좌가 강좌 자체는 너무 좋은데 한 학교에서는 희망자가 너무 적을 때 클러스터 형식으로 몇 학교를 모아서 할 수 있나요? 클러스터 작업하고 조금 다른데 자유학기제도 희망자는 적지만 의미가 있는데 한 학교로 운영이 안되었을 때 클러스터 방식, 지역사회 중심으로 몇 학교 연결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지금 의정부 쪽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덕: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이 학교에서 할 경우 다른 학교에서 와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밖에서 모인다고 했을 때는 이 학교에서 일

부, 저 학교에서 일부 와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선: 고등학교도 변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클러스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미 자유학기제는 엄청난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작업은 학교의 의지이지,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중훈: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특목고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공식적인 특목고 입시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목고가 안되면 자사고 간다고 준비합니다. 학생들이 5, 6학년이 되면 상당히 힘들어 해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3것까지 공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울대 가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중상위권 학생들은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가 사교육의 핵이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유경: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전면화 되면서 예산 없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것인지, 예산이 점점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학교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쨌든 혁신학교, 자유학기제는 공교육 내에서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이 가야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 지원은 언제까지 되어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용선 선생님께서 제주도는 100% 자유학기제 하겠다고 했고 서울은 잘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이 어떻게 보면 교사도 더 우수하고 지역인프라도 가장 많고 그런데 왜 서울이 잘 안될까, 서울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상덕: 제가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비 외에 체험학습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복지비 안에 희망학교 예산에 준하는 형태로 포함했습니다. 지금 전면화가 되면 예산배분이 안될 것이다 하는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의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선: 서울이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책의 혼합형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아주 좋다고 자유학기제가 잘된다거나 인프라가 없다고 안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가 지금 100%하기로 한 것이 잘되서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주는 가장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제주시의 욕망의 교육학이 들끓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고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받을 자유학기제, 혁신학교도 같이 추진하자는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은 제가 보고 듣기로는 강남의 흐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해관계, 제주는 제 표현으로 카오스가 이제 시작되는 곳이고 서울은 풀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학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그런 흐름이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찾고 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을교육 공동체든 자유학기제든 교사가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거기의 핵심은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 부분은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표준교육과정이 있고 교과서가 있어서 못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혁신학교는 그 흐름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도 교사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었어요. 시도교육청에는 더 많이 주었습니다. 교사들이 국가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거나 관행상 잘 안되거나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가기 시작하면 떨어낼 것 떨어내고, 결합할 것 결합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교실이 돼요. 바느질하는 할머니한테 가는 수업이 될 수 있고, 교회에 가서 인문학을 듣는 수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토론문에도 썼는데 정병오 선생님께서 성취기준을 자세하게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과정을 대강화 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핵심성취기준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쭙어 본 것이 이것이 대강화로 가는 길 이냐고 물었는데 대강화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국가의 목표를 교육과정으로 감지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흐름이 선진국의 흐름이고, 자유학기제가 성공하려면 교사들의 기획력이 살아나야 하는데 교과 수업에서 그런 활동이 빛이 나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5. 마무리

김진우: 발제자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병오: 서울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민주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이 있어서 말을 잘 안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하라고 해도 잘 안할 수 있죠. 지방의 경우 하라하면 싹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선생님들이 평균 연령이 높아요. 대부분 학교가 50대가 주축입니다. 이분들이 교장선생님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움직이지 않는, 안정적이면서 자존심도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울교육의 특성이 있어 장단점이 있다 보여집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는데 어찌될지는 모릅니다. 여러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이것을 끌어가지지 죽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죽지 않게 하려면 이끌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고입문제라든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끌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운동측면에서 미시적인 측면도 봐야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계속 봐야하는 것이고, 역량차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정부가 하는 정책이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역량을 채우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교사운동의 과제이기도 하고, 이런 관점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교류가 많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육개발원만 열심히 하고 있고, 학교가 열심히 하고, 경기도가 저번에 토론회 했는데 교육운동측면이나 다른데서는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 발행인 : 김진우, 임종화
- 편집인 : 김민정
- 발행일 : 2015.03.06
- 발행처 : 좋은교사운동 문서출판부